

특별기고 한국인의 멋 ⑤

그네의 멋은 곡선과 색깔 및 울동의 조화의 극치



정동학 박사
前 재경포천시민회장

(2) 춤의 멋
한국의 춤은 민속무와 궁중무, 의식무, 가면무 등으로 구분되는데 민속무 중에 뛰어난 것이 농악무와 승무다. 농악무는 다른 춤과 달리 흥겹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도 일품은 상무돌리기인데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열두 발이나 되는 상무를 목으로 돌리며 둥근 원을 그리는 모습은 곡선과 울동의 극치다. 민속무 중에도 승무는 한국 춤의 정수다. 흰 장삼과 붉은 가사가 조화된 소박하고도 우아한 의상미와 부끄러운 듯하면서도 숙연하고 경건한 몸가짐, 심원한 불교의 정신이 그윽한 가락에 실려 울려 퍼짐은 한국인의 유연하고 우아한 심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민속무와는 그 격을 달리하는 화려한 궁중무도 있다. 푸른 빛 동투리에 붉은 대미, 청·홍색이 조화된 치마저고리, 필립이는 치맛자락의 울동, 치마 끝에 가꿈 드러나는 흰 비선묘의 곡선미 등은 곡선 및 색과 울동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화려한 '멋'으로 조화미를 초극한 '멋'이면서 한국 춤의 파격적 '멋'이기도 하다.

(3) 문학의 멋
나는 줄지 「韓國民族의 史的 研究(일조각)」에서 한국 민요의 내용적

특질을 규명함에 비애가 응집된 한(恨)을 기본 주조(主調)로 보고, 이를 해학으로 승화시킨 것이 은근한 문체적 특질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김 외지적인 끈기가 구성적 특질을 이루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요뿐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의 특질도 그러하니 그 대표적인 작품이 '처용가'나 '서경별곡', '가시리' 등을 비롯해서 '단심가'며 '사미인곡', '심청가' 등이며 이것은 '한(恨) 오백년'과 '아리랑'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월이 '진달래'나 조지훈의 '승무' 등과도 이어짐을 말한 바 있다.

(4) 언어의 멋
한국 언어의 특질은 서양 언어가 논리적이고 주지적인데 반해 정서적 감각 언어가 많고 특히 형용사가 발달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시'는 말에 '시름하다, 시크르레하다, 새롭다, 시름스럽다. 시적지근하다, 시의 유사어가 많다. 같은 의미를 다소 변화 있게 표현함으로써 기본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낱말들을 달리하는 것은 파격에 의한 한국어의 운치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어는 말에 의한 해학이 많다. 한국의 해학은 '말의 익살'이라고 할 정도로 어의적 해학(語義的 諧謔)이 발달하였다.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사방인지, 남방인지, 정원에

정치고 이월이 이질 않고, 말아보니 마타리나물, 돌아보니 도라지나물" 등의 말의 익살이 많고 심지어는 식물명에도 '며느리배꼽, 도둑놈지팡이' 등의 해학적 어휘가 많다. 그리고 우리말은 문장에서 기본이 되는 주어와 서술어가 수가 많을수록 더 서술어인 동사가 문장 끝에 온다. 또한 수적인 개념이 희박하여 단수 복수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에 감각 언어가 많은 것은 다정다감한 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어가 생략되고 수 개념이 희박한 것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기 보다는 직관적이고 정적인 생활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문장에서 기본 어휘인 동사가 맨 나중에 쓰이는 것은 한국 민족의 우유부단하고 여유 있는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학적인 말이 많은 것은 생활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즐겁게 살아가는 낙천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해학은 가난과 고통의 승화요 말의 풍류이며 운치다. 슬픈 인생을 말장난에 의해 웃어넘기니 그것은 경쾌하기보다는 은근한 웃음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다정다감하고 여유 있으며 은근하고 끈기 있는 심성은 언어의 특질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5) 그네의 멋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멋'의 특

질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질이 종합적으로 잘 조화된 것이 '그네뛰기'다. 오월 단요를 전후해서 화려한 웃을 입을 여인네들이 우람하고 오래된 고목 나무 가지에 드리운 흥백의 동아줄에 매달리어 하늘 높이 나는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남다른 가난이나 노동자 시집살이 등에 시달리던 한국 여인들의 하늘과 자유를 향한 비상(飛翔)이요 동경이며 낭만인 것이다.

그 중에도 특히 쌍그네의 '멋'은 한국인의 '멋'의 극치다. 돌이 마주 서서 한 편의 궁둥이를 뒤로 빼며 부르며 다른 한 편은 똑바로 서서 끌려가고 이것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무 끝까지 오르는 것이다.

오월의 푸른 하늘 밑에 한껏 푸르른 산 및 나무의 배경과 청·홍·황·백색 치마 저고리의 조화, 그 위에 긴지마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루는 곡선과 희끗희끗한 보일동일동한 속치마의 운치며, 붉은 띠기로 조화를 이룬 치렁치렁한 검은머리의 나무결 등은 곡선과 색깔 및 울동의 조화의 극치다. 하늘 선녀의 놀이라고나 할까? 자연과 사람이 혼연 일체가 된 그대로다. 곡선도 자연이요 색도 자연이며 울동 또한 자연인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자연미의 결정체며 '한국인의 멋'의 극치로 규정하는 바이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⑬

람사협약과 논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앞서 언급했듯이, 습지는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와 산란처로서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생물종이 매우 풍부한 생태계이다. 이는 습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 생태계이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자연자원이다. 습지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생태학적 자각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생태학적 자각과 실천을 단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구체화된 의식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습지의 기본 텍스트로 통하고 있는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람사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지역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람사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해안도시인 람사(Ramsar)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고,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으며, 약 1,650개 습지가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습지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등이 해당된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범주에는 생물학적이고 지리학적인 특이한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생태의 대표적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습지,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가 해당된다. 둘째 범주에는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협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이종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가 포함된다. 셋째 범주에는 습지의 가치 생산성과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체의 종 또는 이종의 점지구적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가 속한다.

그런데, 람사협약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습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를 보호하는 것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이 습지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를 속에서 인간의 혜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람사협약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공간 속의 습지에 대한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습지는 단순히 그 자체의 생물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영역으로 그 가치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식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5년 캄팔라에서 열린 제9회 람사 총회에 미야기현의 카부우리 늪과 그 주변 논을 람사협약에 신청을 하였고, 그곳이 아무런 이견 없이 등재되었다. 이는 인간의 농업 생산활동의 중심 무대인 논습지가 람사협약에 등록된 세계최초의 사례로서 환경의 지속 가능한 활용에 기본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태연합회가 2006년 홍성의 유기농에서 논생물 다양성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조합원들과 농민들이 논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발견함과 동시에, 논습지가 습지 생태계로서 뛰어난 환경보전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리나 우렁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유기농법 이외에도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의 생태를 연구하여 논습지의 근원적 생명력을 활용하는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아울러, 습지로서의 논생물 조사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공간이 생태계와 유기적인 깊은 공존관계를 맺고 있음을 체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논습지는 토지자원 관리에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습지의 '현명한 이용' 차원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은 국토 면적과 자연자원의 집약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에서 논습지의 현명한 활용은 생태학적 가치가 중요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분절된 논두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논습지에 살충제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유기농법으로 오리와 우렁이를 포함하여 벼와 토란과 연 등 다양한 습성 생물종을 재배한다면, 논습지의 생태계와 셋강과 주변의 생활공간이 연결하는 경관생태학은 생태도시가 추구하는 '현명한 이용'의 바람직한 조건이 될 것이다.

교육에세이 82



이호연
영광초등학교 교장

최근 미산·왕진지역 4개 초등학교 3~5학년생 11명은 사설 체험학습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배낭여행 중 모 사찰에 들렀다가 방명록에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쓴 내용이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때 국제금융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단기외화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다. 기업이 부도나면 망하듯 국가도 부도나면 망하게 된다. 그러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국민은 이 어려운 국가 부도 위기를 슬기롭게 잘 모면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소에 필자는 '교육력은 국력이다'라는 논리를 펴 왔다.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치열한

국제사회에 나가 경쟁하여 이겨내는 일이야말로 국가발전의 근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또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도덕교과 '가정, 이웃, 학교생활' 영역의 지도요소를 보면 ▶경애의 의미와 중요성 ▶일상생활에서 경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일 ▶경애를 실천할 때 지켜야 할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자신의 생활 반성과 일상생활에서 경애를 실천하려는 태도 등등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애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기본 덕목으로 내면화 시켜 주어야 한다. 이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지도해 주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들에게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막가는 욕설을 쓰도록 권유했다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어른들이 권유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험사리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쉽게 말려드는 상황은 교육의 위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순자의 거필택향(居易擇鄉)이 생각난다. 순자는 거필택향(居易擇鄉: 반드시 거칠 곳을 가려 택하라)을 설하였다. 내용인 즉 난과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가 있다. 백지

마중지봉(癡中之蓬)

라고 하여 향료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리 향료로 쓰이는 그것도 오줌에 적시면 어느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본질이 더럽기 때문이다. 아니라 거기에 묻은 오줌이 더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순자는 거칠 곳을 가려 택하는 것이 선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강조하고 있다. 거칠 곳을 잘 가려 택한 예로 순자는 마중지봉(癡中之蓬)을 들었다. 여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마중지봉(癡中之蓬)이다. 좋은 가정이나 환경에서 자라는 좋은 벗과 사귀는 사람은 자연히 주위의 감화를 받아 선량하여 진다는 말이다.

마중지봉(癡中之蓬)은 삼밭에 자라는 썩어가는 뜻인데 썩은 잘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고 무릎 정도로 자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런 썩어 삼밭에서 자라면 불들어 매어 주지 않아도 삼의 방향으로 곧게 자라고 삼과 똑같은 키로 자란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썩고 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즉, 마중지봉(癡中之蓬)이란 말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주위의 감화를 받아 선량해 진다는 말이며, 여기에서 삼은 좋은 친구, 좋은 환경을 말하고 있다. 이를 불부이직(不扶而直)이라고 한다. 구부러진 썩도 삼밭에 나면 자연히

썩듯하게 자란다. 썩이 삼밭에서 자라면 불들어 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이런 개념에 준하는 거칠 것을 정할 때 반드시 마음을 가리고(擇), 교육할 때는 반드시 곧은 선비와 어울린다. 이는 사약함과 치우침을 막아서 중정(中正)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하찮은 썩도 삼과 함께 있으면 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도 어진 이와 함께 있으면 어질게 되고 악한 사람과 있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환경이 중요함을 함축한 말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품위 있고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초등 보통교육을 시키고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시킨다.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자라는 어린 학생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 또한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그분들의 모든 영향력이 자생애인이 되어 잠재 역량을 갖는 국가적인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자라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겠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부흥과 발전이 기약된다고 할 수 있다.

축 OPEN

환경 조경공사

포천 나무(묘목) 시장

각종 유실수 및 관상수 묘목 · 잔디 · 도/소매

대표 김영해

TEL. 535-6085
팩 스 : 031)536-6086
휴대폰 : 011-757-6085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46-7(대운광장 뒤)

잔디, 묘목, 관상수, 유실수, 준공수

자연석, 강화석 전문시공

※ 농가에서 재배하신 수목을 구매 및 판매하여 드립니다.